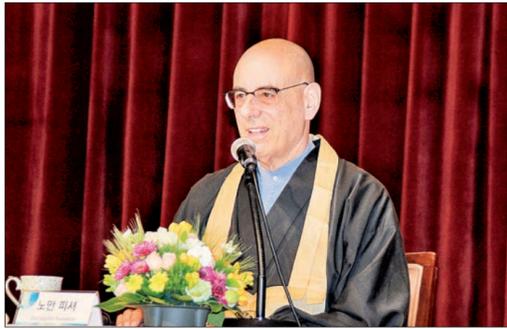


■ 구글 명상프로그램 자문...美 선수행자 노만 피셔

“미워하지 마라, 당신만 괴로울 뿐”

다르마프렌즈 초청 15일간
서울 부산 해남서 대중강연

“건전지 광고 나온 토끼처럼
열정적 수행하고 남 도와야”



노만 피셔 법사는 지난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재단에서 대중강연을 했다.

“세상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악도 사랑해야 하나?”

“좋은 사람을 사랑하는 게 어렵지만 사랑해야 한다. 미워하면 당신만 괴롭다. 미국에는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 유감스럽게도 대통령은 그 사람이 자신을 미워하는지 관심이 없다. 미움 때문에 여러분 삶이 왜곡되고 힘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는 것에 힘을 쏟는 것, 언젠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보살정신이다. 미움은 더 큰 미움을 낳을 뿐이다.”

서양에서 오랫동안 선 수행을 지도하고 구글 명상프로그램을 자문한 미국의 선(禪) 수행자 노만 피셔(Norman Fischer)가 한국의 불자들에게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을 전했다. 피셔 법사는 지난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재단 지하2층 전통문화공연장에서 대중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방한은 서울 상도선원장 미산스님, 해남 미황사 주지 금강스님, 권선아 스트리트댄 대표 등으로 구성된 ‘다르마 프렌즈’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오는 22일까지 15일간 한국에 머무르는 피셔 법사는 서울 부산 해남 등지에서 대중강연 및 수행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피셔 법사는 이날 짧은 법문에 이어 참가자들과 즉문즉답 시간을 가졌다. 한 참가자

는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고 나이 들고 지쳐가는 삶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고 질문을 던졌다. 피셔 법사는 “우리 몸이 노쇠해지고 기억도 가물거물하고 죽음이 직면할 것을 알지만 막을 수 없다”며 나이를 먹는다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나이가 지긋해지면 하고 싶은 말도,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있다. 그것은 일종의 해방”이라며 “나이트 분들이 하실 역할은 많은 축복을 주는 것이다. 그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해주자. 그 때가 가장 경이로운 순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자신의 얘기를 듣고 질문을 한 사람이 갑자기 생각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한 그는 삶에 대한 태도와 생각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삶에 대한 태도를 성찰하려면 수행이 필요한데 이는 젊은 나이를 먹든 누구나 해야 할 일”임을 강조했다.

선수행을 왜 보살수행이라고 해석하는가에 대해서도 물었다. 피셔 법사는 건전지 광고에 등장하는 토끼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배터리 수명이 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짐 없이 북을 치는 토끼의 모습이 곧 수행이라는 것이다. “보살은 항상 선한 정신으로 건전지 광고에 나오는 토끼처럼 열정적으로 수행하고 남을 돕는다. 설령 이번 생이 다 해도 다음 생에 다시 이어간다. 마지막까지 같은 정신으로 가는 게 보살의 수행이고 진정한 선수행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정치적 격변을 마주하고 있는 한국사회에 대해서도 가르침을 전했다.

“수행자 역할은 지비를 위해 일어서는 것이고, 미워하지 않는 것, 언젠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발원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또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행동이나 운동에 참여할 때 선으로 향해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정치적인 행동에서 이겼는데, 그것이 이기심과 적을 미워하는 마음에 바탕을 둔 것이라면 당신은 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모든 수행을 하는 사람은 서로를 돕고 모두를 사랑하는 것을 위해 펼쳐 일어나야 하고, 지금은 그런 마음이 꼭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했다.

어현경 기자

“생명 나누는 일 가장 큰 보시” 자비나눔기금 2000만원 전달



불교계 유일의 장기기증운동단체 생명나눔실천본부가 지난 9일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에서 자비나눔기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왼쪽부터 일면스님, 총무원장 자승스님, 정형숙 생명나눔실천본부 후원회장.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불교 자비정신과 생명존중사상 실천에 앞장서온 장기기증운동단체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스님)가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에서 자비나눔기금으로 2000만원을 전달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스님은 지난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재단 4층 접견실에서 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자승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을 예방하고 기금을 기탁했다. 이 자리에서 총무원장 스님은 불교계 유일 장기기증 등록기관으로 생명 살리는 일에 힘써온 이사장 일면스님과 생명나눔실천본부 임직원들의 노고를 크게 치하했다.

이사장 일면스님은 “각계각층의 관심과 지

원으로 일반후원자를 비롯해 장기기증 동참자, 조혈모세포기증자 등을 모두 합치면 20여만 명에 이르고, 그간 난치병을 앓는 저소득층 환자 1000여명에게 36여억원의 치료비를 지원했다”면서 “앞으로도 생명을 나누는 일이 가장 큰 보시를 알리는데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총무원장 자승스님도 “불교 단체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후원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 같다. 후원회원 1~2만명 모집하기도 힘든 일인데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치하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또 정형숙 생명나눔실천본부 후원회장에게 단주를 선물하고 더욱 활발히 활동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일체 민중이 행복한 그날까지’

소신공양 정원스님 유고집 발간
서상원 교수, “유지 선양할 것”



은 서상원 교수가 마련했다. 서상원 교수는 스님의 유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선양 사업에 나설 방침이다. 앞으로 유고집 수익금은 민중들과 양심수를 위한 후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스님의 뜻

을 기리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정원스님 추모 사업회 출범도 준비 중이다. 소신공양했던 장소인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 추모비 건립도 계획하고 있다. 서상원 교수는 “유고집 발간을 준비하면서 3번이나 모든 글을 읽었다. 모든 글이 기억에 남지만 ‘이보시오 촛불님네, 내간다고 서러마라, 지구중생 돌고돌아, 언젠가는 다시 만나, 그대 곁에 다가와서 미소짓는 저사람이, 넘어질 때 손잡는이, 나인 것을 알고 사소라는 글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정원스님의 뜻이 가장 잘 담겨 있는 글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엔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종교제의유산위 초대 위원장, 이해은 교수 (유네스코 자문기구)

종교제의유산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이해은 동국대 교수(사진)가 선출됐다. 문화재청은 프랑스 파리에서 지난 7일 열린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이코모스) 이사회에서 올해 새로 발족하는 종교제의유산위원회(PRE-RICO) 초대 위원장으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 위원 이해은 동국대 교수가 선출됐다고 밝혔다.



로 학술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만큼 이번 이해은 교수의 위원장 선출은 한국 세계유산 자문기구인 이코모스와 긴밀한 협력관계 증진과 국제 네트워크 형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시아에서 이코모스 학술분과위원장을 배출한 국가는 일본과 인도에 이어 한국이 세 번째다.

이코모스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orld Heritage Committee)의 자문기구로 문화유산 심사를 담당한다. 29개 학술분과위원회로 구성돼 있으며 9500명의 회원과 110개 국가 위원회가 참여하고 있다. 이코모스 활동이 주

이해은 교수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지리학 석사학위를,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에서 지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경민 기자 kylee@ibulgyo.com

‘불교지화 장엄의 재조명’

전승회, 학술세미나 개최

불교지화장엄전승회(회장 정명스님)가 오는 24일 오후1시 한국불교역사문화재단 2층 국제회의장에서 ‘불교지화 장엄의 재조명’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김태연 대구대 명예교수가 ‘지화장엄의 세계와 가치’를 주제로 기조 발표하며, 양승승 무속 박물관장이 ‘불교와 무속의 전통지화 비교 고찰’을, 김성순 서울대 종교문제연구소 연구원이 ‘동아시아 삼국의 전통지화 비교 고찰’을, 정성준 동국대 티벳대장경역경원 전문연구원이 ‘불교지화에 나타난 밀교의 영향-오방색의 중심이 흰색이란 점을 포함해서’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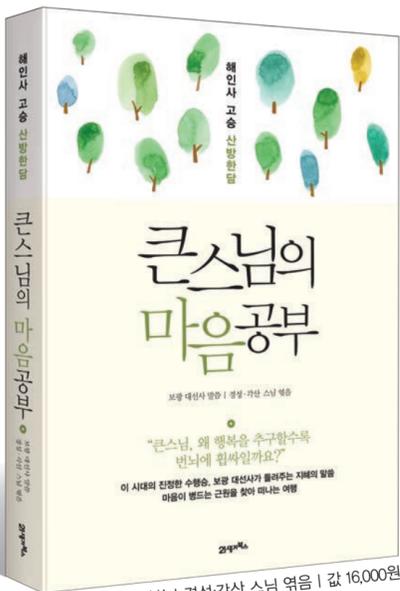
‘지눌과 계승자들의 수행’

보조사상연구원, 세미나

보조사상연구원(원장 김호성)이 오는 17일 오후2시 서울 법련사 2층 문화강당에서 ‘보조지눌과 그 계승자들의 사상과 수행’을 주제로 제118차 정기월례학술대회를 연다.

정혜정 원광대 마음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가 ‘지눌의 원돈신해문과 마음수행’을, 김성순 서울대 종교문제연구소 연구원이 ‘질 의록(質疑錄)에 나타난 금명보경(錦溟寶鏡)의 근대기 불교인식’을, 조계종 교육아사리 문공스님이 ‘탄허의 보조계승과 그 확장’을 주제로 발표한 다. 논평에는 김현학·김용태·임삼희 동국대 교수가 참여한다. 이경민 기자 kylee@ibulgyo.com

큰스님, 왜 우리 삶은 이렇게 팍팍하기만 할까요? 보광대선사가 전하는 행복의 말씀



마음이 병드는 원인을 찾아 바로 고쳐주는
해인사 큰스님의 즉문즉답

“세상살이가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우리는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괴롭다고 원망을 합니다. 그래봤자 나만 손해입니다. 괴로움의 원인도, 또 괴로움의 결과도 결국 자신의 견해와 집착 때문에 생깁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일체의 편견과 집착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본문 중